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행정학 석사 학위논문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정책 효과 분석

- 취업성공패키지와 비교를 통해 -

2022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행정학전공
김 장 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정책 효과 분석

- 취업성공패키지와 비교를 통해 -

지도교수 금 현 섭

이 논문을 행정학 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1년 9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행정학전공

김 장 현

김장현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1년 12월

위 원 장 김 병 조 (인)

부 위 원 장 김 동 욱 (인)

위 원 금 현 섭 (인)

국문초록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청년 실업률은 2015년 약 9%를 기록한 후 2020년까지 전반적으로 동 수치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기간 동안 소위 체감실업률이라 표현하는 확장실업률은 같은 기간 21.9%에서 25.1%로, 약 3.2%(p)가 증가하였다. 청년실업은 청년들의 삶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친다. 또한 청년들의 문제는 사회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므로 청년 실업에 대한 대책은 항상 핵심 과제 중 하나였다.

이에 우리나라 역시 지속적인 노동정책을 통해 청년들의 취업을 지원해왔으며, 2009년에 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해 청년들을 포함하는 취업 관리 프로그램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급격하게 변화하는 사회 환경 속에 대표적인 직접 일자리 사업인 취업성공패키지와 다른 다양한 청년 취업 지원 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에 대안으로 노동시장 진입을 위해 발생하는 구직 준비 비용을 지원해주는 것을 목표로 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 2019년 3월 처음 시행되었다. 그러나 현금성 지원이라는 정책의 성격은 정책의 효과에 대한 의문에 지속하여 마주하였음에도 해당 정책에 관한 연구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를 통해 ①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 청년들의 취업활동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② 고용노동부에서 밝힌 바와 같이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 별도의 정책으로 시행되어야 하는 의미가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분석을 위해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실시하는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Graduates Occupational Mobility Survey : GOMS)를 사용하였다. 해당 조사는 매년 대학(교) 졸업자 1만 8천 명을 표본으로 추출하여 1회 조사를 시행하는 횡단면 조사이며, 해당 연구에 사용한 연도는

2019년 조사로, 조사기준일은 2019년 9월이며 해당 표본의 대상들은 2017년 8월 또는 2018년 2월 졸업생들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대상은 현재 경제적 활동을 하고 있지는 않으나 취업을 위해 구직활동을 하는 대상 및 현재 경제적 활동을 하고 있지도 않고 지난 4주 동안 취업을 위해 구직활동을 하지도 않은 대상 총 3,478명을 최종 표본으로 선정하였다.

해당 대상들을 바탕으로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 청년들의 취업활동에 미치는 영향 및 정책적 차별성을 확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여 확인하고자 하였다. 첫째,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및 취업성공패키지는 청년들의 구직활동 여부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 둘째,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및 취업성공패키지는 청년들의 유보임금 상승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 셋째,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및 취업성공패키지는 청년들의 취업목표 인식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

위의 가설에 관해 확인하기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 선형 회귀분석 및 순서형 회귀분석을 사용하였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및 취업성공패키지는 청년들의 구직활동 여부에 정(+)의 값을 나타내었다. 둘째,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및 취업성공패키지는 청년들의 유보임금 상승에 부(-)의 값으로 나타내었다. 셋째,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및 취업성공패키지는 청년들의 취업목표 인식에 대해 상반된 값을 나타내었다.

위의 분석 결과에 따른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나 취업성공패키지나 취업지원 정책은 청년들의 구직활동 여부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취업성공패키지를 경험한 청년의 경우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경험한 경우보다 구직활동을 할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일자리를 직접적으로 알선해주는 정책의 성격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둘째, 청년구직활동지

원금이나 취업성공패키지의 경험은 청년들의 유보임금을 상승시키지는 못하였다. 이는 취업지원 정책이 청년들의 유보임금을 상승시킬 정도의 지원이 아니라고 볼 수 있으며, 오히려 현금성 지원인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경험한 경우보다 취업성공패키지를 경험한 경우가 유보임금이 더 낮다는 점은 개인의 배경, 사회 환경 및 자기 목표 등이 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셋째,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경험하였을 때 상대적으로 취업목표를 잘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취업성공패키지를 경험하였을 때 상대적으로 취업목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에 따른 의의는 다음과 같다. 먼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현금성 지원 정책이나, 청년들의 유보임금을 상승시키지 않고 청년들의 구직활동을 가능성을 높여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경험한 청년들의 경우 취업목표에 대해 상대적으로 뚜렷하게 인식하고 있을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 정책적 차별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청년들은 취업성공패키지와 같이 일자리 알선 및 프로그램 참석 등의 구체적인 지원이 필요한 예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자율적이고 집중적인 현금성 지원이 필요한 예도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청년들의 취업지원 정책은 정책의 대상인 청년들의 수요에 맞춰 여러 방법으로 전달할 필요가 있다. 이는 이행노동시장이론에서 언급하는 바와 같이 노동의 이행과정에 있어서 마주하는 위험을 사회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며, 이러한 관리를 통해 노동시장은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다.

.....

주요어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취업성공패키지, 청년실업, 취업지원 정책, 이행노동시장이론

학 번 : 2014-23505

외국어 초록<Abstract>

According to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 the youth unemployment rate in Korea recorded about 9% in 2015 and remains at the same level overall until 2020. However, during the same period, the expanded unemployment rate increased by about 3.2%(p) from 21.9% to 25.1% during the same period. Youth unemployment has a major impact on the lives of young people. In addition, since youth problems affect society as a whole, countermeasures against youth unemployment have always been one of the key tasks.

Accordingly, Korea has also supported the employment of young people through continuous labor policies, and in 2009 implemented an employment management program that included young people through the Employment Success Package program. However, in the rapidly changing social environment, the need for various other employment support policies for youth has emerged. As a one of the various employment management programs, the job-seeking activity subsidy policy for youth was first implemented in March 2019. However, although the feature of the policy as cash support has been continuously faced with questions about the effectiveness of the policy, research on the policy is still lacking.

Therefore, through this study, ① the effect of the job-seeking activity subsidy policy for youth on the youth's job searching activities was investigated and ② whether the job-seeking activity subsidy policy for youth should be implemented as a separate policy as revealed by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For the analysis, the Graduated Occupational Mobility Survey (GOMS) conducted by the Korea Employment Information Service was used. This survey is a cross-sectional survey in which 18,000 college/university graduates are sampled every year and conducted once. The subjects of this study are August 2017 or February 2018 graduates. In addition, the subjects to be confirmed in this study are those who are not currently economically active but are looking for a job, and who are not currently economically active and have not been looking for a job in the past 4 weeks. a total of 3,478 people was selected as a sample.

Based on the relevant subjects, the following hypotheses were established and confirmed in order to check the effect of the job-seeking activity subsidy policy for youth on young people's employment job searching activities and policy differentiation. First, the job-seeking activity subsidy policy for youth and the employment success package program will have a positive (+) effect on young people's job-seeking activities. Second, the job-seeking activity subsidy policy for youth and the employment success package program will have a positive (+) effect on the increase in the reservation wage of young people. Third, the job-seeking activity subsidy policy for youth and the employment success package program will have a positive (+) effect on young people's perception of employment goals.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linear regression analysis, and ordinal regression analysis were used to confirm the above hypothesis, and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job-seeking activity subsidy policy for youth and the employment success package program

showed a positive (+) value on the youth's job-seeking activities. Second, the job-seeking activity subsidy policy for youth and the employment success package program were expressed as negative (-) values for the increase in the reservation wage of young people. Third, the job-seeking activity subsidy policy for youth and employment success package program showed conflicting values for young people's perception of employment goals.

The conclusions based on the abov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t was found that not only the job-seeking activity subsidy policy for youth but also the employment success package program, were positive for young people's job-seeking activities as employment support policy. However, it was found that young people who experienced the employment success package program were more likely to seek a job than those who experienced the job-seeking activity subsidy policy for youth, which seems to reflect the feature of the policy that directly arranges for a job. Second, the experience of the job-seeking activity subsidy policy for youth or the employment success package program did not increase the youth's reservation wage. This can be seen that the employment support policy is not enough to raise the youth's reservation wage, and the fact that the reservation wage is lower in the case of experiencing the employment success package program than in the case of experiencing the job-seeking activity subsidy policy for youth, can be understood that an individual's background, social environment, and self-goal are more influential. Third, it was found that they were relatively well aware of the employment goals when they experienced the job-seeking activity subsidy policy for youth, and when they experienced the

employment success package program, they were relatively less aware of the employment goals.

The significance of the results is as follows. First, it was confirmed that the job-seeking activity subsidy policy for youth increases the possibility of young people's job-seeking activities without raising reservation wage. In addition, in the case of young people who experienced the job-seeking activity subsidy policy for youth, it was found that they were more likely to have a relatively clear perception of the employment goal. In other words, it can be understood that there are cases where young people need specific support such as job placement and participation in programs, such as the Employment Success Package program, but there are also cases where they need autonomous and intensive cash support. Therefore, employment support policy for youth needs to be delivered in various ways according to the needs of the youth, the target of the policy. As mentioned in the transitional labor market theory, this is to socially manage the risks encountered in the process of labor transition, and through such management, the labor market will be able to operate more efficiently.

.....

Keywords : the job-seeking activity subsidy policy for youth, the employment success package program, youth unemployment rate, employment support policy, the transitional labor market theory

Student number : 2014-23505

< 목 차 >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1
------------------	---

제2장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 검토

제1절 정책 현황

1.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개요	5
2. 취업성공패키지 정책과의 차이점	7
3. 청년구직활동지원금에 대한 찬반	9

제2절 이론적 논의

1. 이행노동시장 이론	11
2. 우리나라의 청년 취업지원 정책	12

제3절 선행연구 검토	14
-------------------	----

제3장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제1절 연구의 분석 틀

1. 연구대상	18
2. 연구가설	18

제2절 연구분석 모형

1. 분석자료	22
2. 조작적 정의	22
3. 변수의 구성	23
4. 연구분석 방법	26

제4장 연구결과

제1절 기초통계

1. 기초통계분석	27
-----------------	----

2.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취업성공패키지 평균 차이 31

제2절 회귀분석

1. 구직활동 여부 33
2. 유보임금 34
3. 취업목표 인식 37

제5장 결론 및 제언

제1절 결과 요약 39
제2절 연구의 의의 및 한계 41

참고문헌 44

〈표 목차〉

〈표 1〉 우리나라 노동시장정책 변화 과정	4
〈표 2〉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추진 개요	6
〈표 3〉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취업성공패키지 사업간 차이	8
〈표 4〉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수급 전후 활동 변화	10
〈표 5〉 가설 요약	21
〈표 6〉 변수의 구성	25
〈표 7〉 개인 요인별 특성	27
〈표 8〉 가구 요인별 특성	28
〈표 9〉 학교 요인별 특성	29
〈표 10〉 청년 취업지원 정책 경험 여부	30
〈표 11〉 종속변수 관련 기초통계	31
〈표 12〉 ANOVA 분산 분석 결과	32
〈표 13〉 구직활동 여부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결과	34
〈표 14〉 유보임금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결과	36
〈표 15〉 취업목표 인식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결과	38
〈표 16〉 결과 요약	39

〈그림 목차〉

〈그림 1〉 이행노동시장의 유형 이론	13
〈그림 2〉 연구분석 틀	21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청년 실업률은 2015년 약 9%를 기록한 후 2020년까지 전반적으로 동 수치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기간 동안 소위 체감실업률이라 표현하는 확장실업률은 같은 기간 21.9%에서 25.1%로, 약 3.2%p가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차이는 우리나라의 청년 니트(NEET)의 비율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매우 높아 일반적인 실업률 수치에는 반영되지 않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특히 우리나라는 타 국가 대비 대졸 이상의 고학력 청년 니트의 비중이 매우 높고, 동시에 구직활동을 하는 실업 니트에 비해 비경제활동 상태에 있는 청년 니트의 비중이 높다는 특징이 있다(김기현·배상률·성재민·배진우, 2018).

청년실업은 청년들의 삶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친다. 대졸 청년들에게 있어 대학을 졸업하고 난 후 노동시장으로의 최초의 이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청년 개인은 정서적인 불안정성과 더불어 연쇄적이고 다차원적인 문제에 마주하게 된다(우아영·윤연숙, 2020). 이런 청년들의 문제는 사회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므로 청년 실업에 대한 대책은 항상 핵심 과제 중 하나였다.

우리나라의 취업 지원 정책은 <표 1>과 같이 변화해 왔다. 우리나라는 인구구조가 급격하게 변함에 따라 관련 정책의 방향도 빠르게 변화하였는데, 지금까지는 청년 취업 지원 정책을 주로 청년 인턴과 같은 경력제공을 위한 단기적인 일자리 또는 기업에 고용지원금을 제공하는 등의 직접 일자리 사업을 중심으로 진행해 왔다. 하지만 양질의 일자리를 원하는 청년층과 이를 충족시켜 주지 못하는 이중 구조 노동시장 형태 속에서 기존의 정책들은 정책의 수요자인 청년

층에게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였다(김도균·최석현·유보배, 2017).

특히 대표적인 직접 일자리 사업인 취업성공패키지의 경우 사업을 위탁받은 민간기관 등이 관리자가 되어 구직자들의 구직활동을 관리하는 형태로 진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민간 위탁기관의 비전문적이고 비효율적인 운영 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기도 하였다. 또한, 정부가 사업의 위탁기관 선정 시 지표로 삼고 있는 취업률 산정 방식도 청년층의 수요와 부합하지 않는 인턴이나 아르바이트 등도 포함하면서 실질적인 취업 활동의 도움보다는 양적 지표를 위하여 우선 취업시키는 데 중점을 두는 등의 문제점도 제기되었다(김덕호, 2020).

이와 같은 기존의 청년 취업 지원 정책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된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2018년 ‘청년일자리대책’을 통해 처음으로 제시된 후 2019년 3월부터 시행한 청년지원 대책으로, 청년들이 노동시장 진입을 위해 발생하는 구직 준비 비용을 지원해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기존의 청년고용정책의 한 계로 지목되는 직접 일자리 지원의 형태에서 벗어나 청년층의 노동이행 과정에 대한 포괄적인 실업 부조 제도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장기화하는 구직과정에서 청년층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청년층의 직업훈련 및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고자 함에 있다(고재성 외, 2019).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제도는 정부에서 지정하는 필수요건 등을 충족하지 않아도 신청하는 것만으로 직접적인 지원금을 얻는다는 점에서 기존 취업성공패키지와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청년수당 제도와의 유사한 측면이 있다. 또한,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청년들을 수동적인 관리의 대상으로 보기보다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대상으로 접근하여 청년들의 다양한 수요를 지원

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취업 지원 정책과는 큰 차별성을 가진다(고재성 외, 2019).

이러한 관점에서 대표적인 취업 지원 정책인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취업성공패키지는 청년들의 취업을 지원한다는 정책적 목표는 같지만, 정책의 성격은 다르다고 볼 수 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실업부조적 관점에서 구직을 촉진하는 구직촉진 수당을 조건 없이 지급하며, 취업성공패키지는 청년들이 직접적인 구직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참여 수당을 지급한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에 대한 무차별성 지원에 대해 문제 제기 역시 존재하기도 한다.

따라서 청년 취업지원 정책의 한 축으로서 수행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에 대한 분석 및 연구가 필요하지만 아직 많은 연구가 진행되지 않아 해당 정책을 이해하기에 한계가 있다. 특히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정책의 목표가 취업이라는 양적 지표보다는 청년들에게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청년층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고자 하는 추상적 목표를 가지고 있고 최초 시행으로부터 오래 지나지 않아 정책의 효과를 명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은 맥락과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 현재 미취업 청년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고 기존의 주요 취업지원 정책인 취업성공패키지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해보고자 한다.

<표 1> 우리나라 노동시장정책 변화 과정

시대 구분	노동시장 여건	정책의 중심
정책 형성기 (1995년 이전)	인력부족 시대	- 직업훈련을 통한 인력공급 중심 - 초보적 직업소개 업무
노동시장 정책 체제구축 (1995년 이후)	인력부족과 고용불안 공존	- 고용보험제 도입 - 고용서비스 체제 구축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2000년대)	대량실업 경험, 실업 지속	- 노동시장정책 프로그램의 구체화 - 고용서비스 체제 선진화 - 취업을 통한 소득확보식 접근
이행노동시장 이론 기반 활성화 노동시장 정책 (2010년 이후)	만성적 일자리부족 및 급속한 고령화	- 한국형 유연안정성 모델 정립 - 활성화 노동시장정책 체제 강화 - 이행을 통한 소득확보식 접근

출처 : 정병석(2010), 171p

제2장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 검토

제1절 정책 현황

1.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개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2018년 3월 발표된 고용노동부의 청년일자리 대책을 통한 공개된 취업지원 정책이다. 스스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간, 총 300만원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만 18세~34세를 대상으로 하는 청년 맞춤 정책이다. 지원 자격은 생애 1회,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4인 가구 기준 5,699,009 원, 2020년 기준)이면서 신청 시점에 고등학교 이하, 대학교 및 대학원 졸업 또는 중퇴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미취업자여야 한다. 해당 정책에 신청한 청년은 매월 구직활동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구직활동 인정 범위는 폭넓게 인정하여, 면접 등 실질적인 구직활동 외에도 취업관련 스터디 및 기타 취업준비 활동 또한 구직활동으로 인정하므로 큰 제약 없이 해당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2020)의 2020년 8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업무매뉴얼에서 밝힌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정책의 추진 배경은 다음과 같다. ① 우리나라 청년 노동시장이 선진국과 다르게 고학력 청년 비중이 OECD 최고 수준이며, 취업준비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다. 한국의 대학진학률은 69%로 OECD 대비 26%p가 높고, 취업준비생은 2005년 35만명 수준에서 2018년 50만명으로 증가하였다. 같은 기간 청년 인구는 996 → 915만명으로 줄어들었음에도 취업준비생은 증가한 점은 체감적으로 청년들의 취업이 더 힘들어졌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취업까지의 소요 기간 역시 같은 기간 약 1.3개월이 증가하였다. ②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가장 큰 어려움은 “취업 준비 비용”을 꼽았다. 청년 삶의 질 제고방안 연구(김

유빈·강동우·오선정·유동훈·이지은, 2018)에 따르면 청년들의 취업 준비비용은 청년들의 취업에 큰 어려움으로 제시되고 있는데, 이처럼 청년들이 취업을 준비하고 직장을 탐색하는 동안 적절한 지원이 없다면 청년들은 본인이 원하는 일자리가 아닌 저임금 일자리로 이동하게 되거나 구직기간이 장기화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 경우 청년들의 첫 일자리는 향후 10년 이상의 노동시장 성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개인, 사회적으로도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KDI, 2017). 따라서 정부는 고학력자 비중이 높고 공채시험 준비 등 다양한 취업 준비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우리나라 청년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기주도적 구직활동을 전제로 한 취업 준비 비용을 지원하고자 하였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2019년 지원 목표 인원 8만 명 중 총 76,793명의 청년이 수급하였고, 2020년에는 코로나와 같은 사회적 재난 상황이 심화함에 따라 청년들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약 10만 명으로 참가대상을 확대하였다(고용노동부, 2020).

<표 2>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추진 개요

국정운영 5개년 계획 (2017년 7월 발표)	청년 일자리 대책 (2018년 3월 발표)
취업성공패키지 3단계와 연계한 구직촉진수당 신설·지급 (30만원, 3개월) (2017~2018년)	졸업·중퇴 2년 이내 미취업 청년 대상 월 50만원, 6개월 지원하는 구직촉진수당 정책 시행, 명칭은 청년정책참여단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청년구직활동지원금으로 결정함
훈련참여·구직활동 청년에게 구직촉진수당(50만원, 6개월) 지급 (2019년)	
저소득 근로빈곤층을 포함한 한국형 실업부조로 발전 (2020년)	

출처 : 고용노동부(2020.8), 5p 일부 재구성

2. 취업성공패키지 정책과의 차이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이전 청년들의 구직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정책은 취업성공패키지를 찾을 수 있다. 2009년 시작된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은 저소득 취업 취약계층에 대하여 개인별 취업 지원계획에 따라 ‘진단·경로설정 → 의욕·능력증진 → 집중 취업 알선’의 취업 관련 종합지원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박혁, 2013).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진로 상담, 심리 검사와 같은 기초 탐색부터 취업 알선에 이르는 근접 지원 정책이며, 단계별로 프로그램 참여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신청자는 중소기업 탐방, 단기 취업특강, 진단 상담프로그램 등을 참여해야 하는 등의 제약이 존재한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취업성공패키지 정책을 우리나라의 대표적 취업 지원 제도로 꼽으면서, 해당 제도가 국민의 취업 활동 및 노동시장에 크게 기여했음을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고용노동부, 2019). 주요 성과로 2010년에서 2018년, 약 9년간의 기간 취업률의 상승(59.2%→64.9%), 12개월 고용유지율의 증가(38.6%→52%)와 같은 양적 지표의 수치 상승과 함께, 개별 인터뷰를 통한 질적인 접근의 성공 사례를 공유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성공 사례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에서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제시하고 있다. ① 고용지원 정책의 법적 근거의 한계 ② 낮은 상담 만족도와 제한적인 취업 지원 프로그램 참여 ③ 저소득 구직자에 대한 소득지원 미흡이다. 이 중 낮은 상담 만족도와 제한적인 취업 지원 프로그램 참여에 대해서는 선행연구(이병희·길현종·김혜원·이영수·오민홍, 2016)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취업 활동의 강제성, 프로그램의 내용이 청년층의 실질적인 수요와 부합하지 않다는 결론과 연결된다.

또한, 저소득 구직자의 경우 직업 프로그램에 참여해야만 소득지원을 받기 때문에 구직활동 기간의 생계 비용 등이 부담이 되는데, 이는 곧 구직자가 만족한 취업으로의 과정에 장애가 된다. 이에 고용노동부에서는 취업성공패키지와 같은 근접지원형 취업 지원 정책뿐만이 아닌 ‘한국형 실업 부조’와 같은 소득 보전 지원 정책의 필요함을 지속해서 밝혀왔다.

이와 같은 배경은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같은 구직촉진 수당의 확대로 이어졌고, 아래 표와 같이 우리나라의 취업 지원 정책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실업 부조 성격의 지원과 종합지원 정책인 취업성공패키지의 투-트랙 취업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표 3>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취업성공패키지 사업간 차이

구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취업성공패키지
목적	취업성공패키지 등 정부 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스스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 대상 취업준비비용 지원	참여자 특성 진단(프로파일링)을 토대로 단계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 취업지원 프로그램 * 상담·경로설정(1단계) → 직업능력증진(2단계) → 취업알선(3단계)
지원대상	졸업·중퇴 후 2년 이내 만 18~34세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미취업 청년 ① 졸업·중퇴: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불문 (졸업 유예, 예정, 수료 청년 중) ② 2년 이내: 시작시점 기준 ③ 미취업: 아르바이트생 등 주 근로시간 20시간 이하 취업자도 미취업으로 간주	만 18~34세 청년 중 ① 고졸이하 비진학 미취업 청년 ② 대학교 및 대학원 마지막 학기 재학생 ③ 대졸이상 미취업자 ※ 취업패 I유형은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자 참여 가능, 취업패 II유형은 소득제한 없음

지원내용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용센터 등 취업지원 프로그램 안내 필요 시 1:1 맞춤형 상담(취업지원 경로 등 관련) 등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담·진단을 통해 청년층 취업역량 파악, 취업지원 경로설정 훈련·인턴·창업·해외취업 등 프로그램으로 연계 지원 집중취업알선 프로그램 진행
	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대 300만원(월50만원) 업종제한, 현금화 불가능한 클린카드로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대 415만원(I유형), 260만원(II유형) 현금 지원(사용처 제한 없음)
지원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대 6개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소 10개월, 최대 12개월 * 최대 수당 수급을 전제 	
지원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매월 구직활동 보고서 제출 후 지원금 수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계별 서비스 참여 후 서비스 참여 정도(횟수, 성실도 등)에 따라 수당 지급 	
순차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종료·중단 후에는 재참여 제한기간(6개월) 이후 지원금 참여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금 참여 종료·중단 후 유예기간(6개월) 이후 참여 가능 	
목표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짧은 기간(6개월 내외) 집중적 구직활동이 필요한 청년 정부의 직업훈련 등 보다 어학학원 등 수업을 필요로 하는 청년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아 구직활동 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청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취업 방향을 정하지 못해 방황하는 청년 정부의 관리를 통해 장기적으로(1년 내외) 취업 능력을 증진시키고 싶은 청년 	
시작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9년 3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09년 	

출처 : 고용노동부(2020.8), 95p 일부 재구성

3. 청년구직활동지원금에 대한 찬반

고용노동부에서 밝힌 구직촉진 수당의 배경과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현금성 지원이라는 점에서 부정적 의견 또한 존재한다. 취업 지원이라는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는지 명확하지 않고, 사용처에서도 취업 연관성이 모호한 경우도 발견되었다. 결제금액 비중으로는 인터넷 구매, 식비, 소매유통 순으로 높아 학원비 등 직접적인 취업 활동과 연결되지 않는 소비처가 많아 사실상 ‘퍼주기 정책’이라는 비판도 직면하였다. 이에 한 매체의 사설

에서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 생활보조금이었나”와 같은 비판 기사를 내기도 하였다(국민일보, 2019).

이와 같은 부정적 의견에도 고용노동부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 ① 아르바이트 활동이 감소하여 구직에 집중할 수 있었고, ② 구직 활동 자체가 증가하였음을 해당 정책의 성과로 발표하였다. 선행연구(고재성 외, 2019)에서도 해당 정책이 청년들의 취업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동 연구에서도 지적하는 바와 같이 해당 정책으로 인하여 미취업자가 실질적으로 감소하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 따라서 해당 정책에 실질적으로 고용시장에서의 미취업자가 감소하는 효과가 있는지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고 볼 수 있다.

<표 4>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수급 전후 활동 변화

구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수급		비고
	전	후	
아르바이트 비율	25.3%	16.9%	8.4%p 하락
아르바이트 일수	2.95일	2.73일	7.5% 하락
아르바이트 시간	5.69시간	5.33시간	6.3% 하락
하루 평균 구직활동	6.33시간	7.42시간	17.2% 상승
구직 관련 활동 비율	89.2%	87.5%	8.3%p 상승

출처 : 고용노동부(2019) 보도자료

제2절 이론적 논의

1. 이행노동시장 이론

이행노동시장 이론이란 1990년대 초 독일 베를린사회연구학술센터의 슈미트(Schmid)가 노동시장정책에 대해 새로운 접근법으로 제안한 이론으로, 취업과 실업, 구조적 특성 등의 정태적 분석이라기 보다는 학교의 졸업, 취업, 실업, 비경제활동 등 노동시장에서 나타나는 개인의 생애 과정에 걸친 여러 상태 간의 유동적인 이행의 과정에 주목하고 이 과정에서 노동정책으로 지원하여 더 나은 상태로의 이행을 유도하는 방안을 세우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정병석, 2010).

이행노동시장 이론에서는 크게 다음과 같은 생애주기를 바탕으로 하는 5개의 노동 이행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림 1>과 같이 교육, 훈련(I), 이직, 자영업 등(II), 가사활동(III), 실업(IV), 은퇴, 장애(V)로 구분하는데, 각각의 국면에서 마주하는 노동시장의 새로운 위험을 다음과 같이 분석한다. 교육, 훈련 → 부족한 소득역량의 위험(I), 이직, 자영업 등 → 불안정한 소득의 위험(II), 가사 활동 → 감소한 소득역량의 위험(III), 실업 → 일시적 소득상실의 위험(IV), 은퇴, 장애 → 영구적 소득상실의 위험(V)과 같이 구분하고, 사회적 위험관리에 대한 사회통합의 정의 등을 제시하여, 사회적 위험관리의 필요성과 전략 등을 제시한다(정원호·나영선·류기락·박경순, 2011).

이행노동시장이론에 따르면 각 이행과정에서 마주할 위험에 대해 안정적인 소득을 제공하여 사회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노동정책은 안정적인 소득 제공을 통하여 이행과정을 관리하기보다는 가능한 한 빨리 취업으로의 이행시켜 소득을 확보하는 형태의 정책을 중심으로 시행해왔다(정병석, 2010). 그러나 IMF 이후 노동시장에서의 사회적 환경이 급격하게 변

화하였고, 청년의 노동 이행 역시 만성적인 청년 실업 속에서 새로운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게 되었다.

2. 우리나라의 청년 취업지원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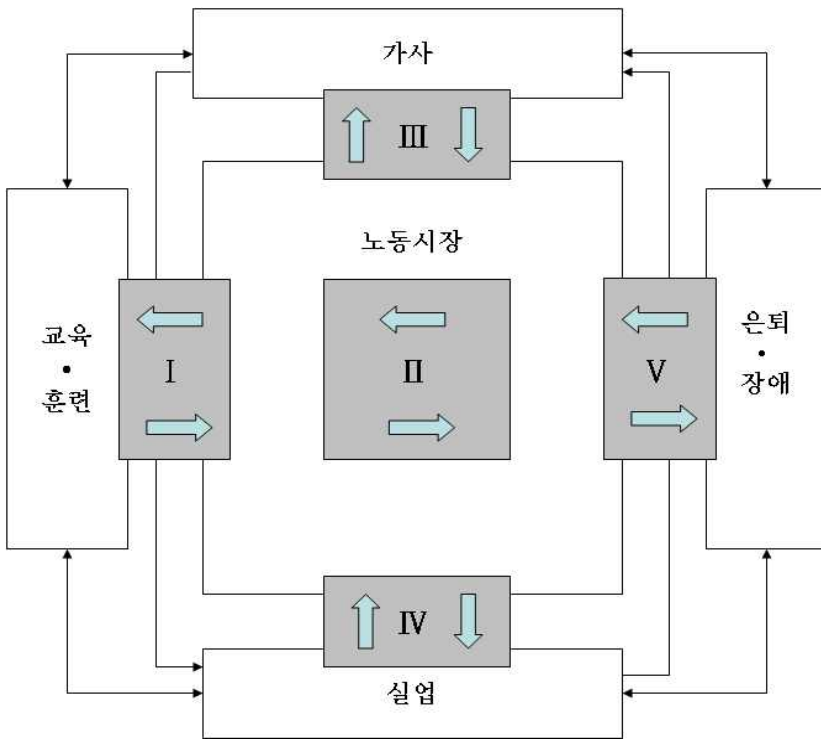
우리나라의 청년고용 문제는 사회의 구조적 문제 속에서 지속적인 악화를 거듭해왔다. 그러나 현재의 청년고용 문제는 민간일자리의 수요의 위축, 기술적 변화와 이에 부합하지 않는 교육·노동시장 등의 문제가 누적되어 발생하는 것으로, 가능한 한 빨리 노동시장으로 복귀하여 소득을 확보하는 ‘MWP(Making Work Pay)’의 접근이 현실적으로 부합하지 않게 되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청년고용 정책 역시 청년들에게 직접적인 일자리로의 연결을 제공하기보다는 청년들의 이행과정에서의 소득의 지원과 노동 이행의 관리를 목표로 변화하고 있다.

대표적인 취업지원 정책인 취업성공패키지 역시 최초 시행(2009)은 빈곤층을 주요 정책 대상으로 시행하였다. 그러나 청년의 취업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해짐에 따라 점차 청년들로 대상을 확대하였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최초의 취업성공패키지는 프로그램 진행 과정에서의 소득지원은 전혀 없었으며, 취업 성공시 취업 성공 축하금을 제공하는 등 취업이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점차 심화하는 청년 실업문제로 인하여 청년층 전체로 사업 대상을 확장하였고, 참여 과정에서 겪는 소득의 상실의 문제로 지적되면서 참여수당을 지급해주는 형태로 발전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청년 취업지원 정책 역시 이행노동시장이론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청년들의 노동 이행과정에서의 지원으로 점차 발전해왔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이행노동시장 이론은 기존의 ‘실업보험’을 ‘노동보험’으로 확장할 것을 주장하는데, 이 노동보험을 통해 위험이 보호될 때, 사람들은 위험한 이행과 그에 따르는 책임을 감수할 수 있다고 본다(정원호 외, 2011).

즉, 청년들이 더 적극적으로 노동에 대해 보호될 때, 노동시장이 유연해지고 노동의 효율성이 높아지는데,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일정한 수준의 소득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역시 이행노동시장 이론에서 볼 때, 청년들의 소득을 지원함으로써 청년들의 노동 이행을 지원하는 정책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다만 이행노동시장 이론에서는 어떤 이행 촉진 정책 방법이 더 나은 방법이라고 제시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정책의 성격과 방법 등은 사회적으로 논의해보아야 할 문제일 것이며, 많은 논의와 연구가 뒷받침될 필요가 있으며,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둘러싼 여러 찬반이 그런 사회적 논의의 일부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1> 이행노동시장의 유형 이론



출처 : 정원호(2011; Schmid(2002) 재인용), 44p

제3절 선행연구 검토

청년층의 고용불안이 점차 심화함에 따라 이와 관련한 많은 연구가 지속하고 있다. 특히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제도가 2019년 처음 시행함에 따라 이에 관한 연구가 새롭게 등장하고 있으나 여전히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대표적인 취업지원 정책인 취업성공패키지에 관한 연구를 통해 노동정책의 성과를 엿볼 수 있다. 김덕호(2020)의 연구에서는 취업성공패키지 정책이 청년층의 취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하고 있다. 해당 연구에서는 취업이라는 정책적 목표와 더불어, 취업지원 정책의 대표적인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는 ‘일자리의 질’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정책의 영향에 대해 분석하고자 했다. 분석결과, 취업지원 정책이 양적인 성과인 취업 여부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일자리의 질적인 부분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재성 외(2019)의 연구에서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에 대한 평가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해당 연구에 따르면, 청년들의 지원금 사용처는 식비부터 미용에 이르기까지 아주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심층인터뷰를 통해 해당 지원금이 자신들의 자기발전 및 구직과정에서 도움이 되었으며, 해당 구직지원금의 수령으로 인한 소득의 증가가 오히려 취업의욕을 고취한다는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박혁(2013)의 연구에서는 취업성공패키지를 참여한 참여자들이 1단계의 진로, 경로설정 단계와 2단계의 의욕, 능력증진 단계보다 3단계의 집중 취업 알선 단계에서 상대적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도 확인되었는데, 이는 참가자들의 다양한 수요를 프로그램 차원에서 충족해주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김호원·이종구(2018)의 연구에서는 취업성공패키지에 만족하는 참여자 집단과 특성을 파악하였다. 연구를 통해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이 실질적으로 어느 특성을 가진 참여자에게 더 만족도와 효과를 주는지 확인하였고, 이를 통해 같은 정책을 투입하더라도 청년들의 배경 및 특성에 따

라 효과나 만족도가 다르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 도입에 관한 기초연구로는 김도균·최석혁·유보배(2017)의 연구가 있다. 해당 연구에서는 청년층의 경제적 상황과 취업 준비의 적극성을 고려하여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기존의 취업 지원 정책과 달리 취업에 적극적이지만 소득의 제약이 있는 유형에 대해서는 기존의 일자리 알선과 같은 정책보다 소득보전 정책이 더 효과적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해당 연구에서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 기존의 일자리 정책과는 목적이 구분되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는데, 해당 정책이 청년고용 문제를 미시적이고 개인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므로 정책의 성과 역시 취업 여부와 같은 양적 지표가 아닌 다양한 관점에서 해석이 필요함을 서술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연구용역사업을 수행한 고재성 외(2019)의 연구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성과 평가와 모니터링 연구를 진행하였다. 해당 연구에서는 다각적인 접근으로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먼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은 참여자 집단은 비참여자 집단보다 지원금을 받고 난 후 “쉬었음” 응답비율이 낮아지는 등 구직의욕이 상승하고, 실질적인 구직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청년들의 구직활동 집중도를 제고하여 구직 시도와 시간이 증가하였다. 세 번째로 아르바이트 등에 사용하는 시간이 줄어드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네 번째로 참여자들의 구직목표가 보다 명확해지고, 구직준비도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섯 번째로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청년들의 필수적 생활 지원과 취업준비 청년의 사교육비를 줄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 번째로 참여자들의 자존감 및 자신감 등을 상승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저학력과 저연령층이 지원 비중이 작았으며, 해당 연구 시점까지는 고용효과는 다른 연도의 데이터에 비해 사회적으로 뚜렷한 미취업자의 감소효과를 보여주지는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 배경 및 기초연구를 볼 때, 청년 기본소득 제도를 통해 엮보기도 한다. 이는 청년 기본소득이 보편적 복지로서 소득제한을 두고 있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는 다소 다른 부분이 있으나, 정책적 수단 및 목적이 유사하다는 점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유영성 외(2019)의 연구에 따르면, 청년기본소득은 청년들의 삶의 만족도 및 행복수준을 향상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노동 동기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기본소득이 청년들의 노동 동기를 저해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주당 구직활동 시간과 주당 직업훈련 시간이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고 있어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같은 소득 보조 정책이 노동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엿볼 수 있다. 전병유·이병희·안태현(2014)의 연구에서는 실업급여의 필요성에 관해서 확인하지만 동시에 근로인센티브를 약화할 수 있다고 확인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연구에서는 실업급여와 같은 소득 보조 정책을 설계할 때 수급자의 모럴해저드에 영향이 가지 않는 정도로 설계해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급여일 수가 짧을수록 신속하게 재취업하는 것으로 나타나 장기간의 소득 보전은 지양할 필요가 있지만, 반면 노동자의 수요 및 특성 등이 배제될 수가 있어 실업과 재취업을 단기간에 반복하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김기현 외(2018)의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청년 니트(NEET)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졸 이상의 비경제활동인구의 니트가 많고 장기화되는 특징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니트의 유형을 취업준비형, 자발적 선택형, 가사돌봄형 마지막으로 구직회피형 총 4개의 유형으로 분류하여 맞춤형 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김종성·이병훈(2012)의 연구에서는 대졸청년층의 비경제활동 상태가 되는 결정요인에 대해 연구하였다. 해당 연구에 의하면, 대졸청년층이 비경제활동 상태에서 구직활동으로 전환하는 요인으로 직업훈련과 자격증의 효과가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분석하고

있다. 또한 성별 차이에 따른 비경제활동 기간의 장기화에 대해서도 분석하고 있어, 청년의 특성에 따른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황정원·길혜지(2021)의 연구에서는 청년고용정책별로 청년층 취업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해당 연구에 따르면 청년고용정책의 참여는 청년들의 취업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어 청년고용정책의 의미를 확인하였다. 한편 청년고용정책의 경험이 취업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에서는 취업성공패키지의 참여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참여하지 않은 경우보다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다른 정책의 경우에는 어떤 통계적 차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 이를 통해 청년고용정책의 목적과 방법에 따라 다른 효과를 줄 수 있으며 참여 대상의 특성을 세분화하여 접근하는 방식에 대한 필요성을 서술하고 있다.

제3장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제1절 연구의 분석 틀

1. 연구대상

고용노동부(2019)에서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 사업 목적을 “우리나라의 고학력 청년들이 취업준비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자기주도적 구직활동 지원에 필요한 청년들의 실질적인 수요를 감안” 하는 취업 지원 정책임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라는 취업지원 정책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연구대상을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은 경험이 있는 청년들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설정된 연구대상에 대해 다음과 같은 영향을 확인해보고자 하였다. ①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 청년들의 취업활동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② 고용노동부에서 밝힌 바와 같이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 별도의 정책으로 시행되어야 하는 의미가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어떤 취업지원 정책도 경험하지 않은 청년들과 취업지원 정책을 경험한 청년들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또한, 황정원·길혜지(2021)의 연구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정책들이 미치는 영향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여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정책의 효과와 차별성에 관해서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에 대표적인 취업 지원 정책인 취업성공패키지를 경험한 청년들을 같이 분석 및 비교를 통해 간접적으로 해당 정책의 효과 및 의미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2. 연구가설

먼저, 고재성 외(2019)의 연구에 따르면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청년들이 실제로 구직 시도가 증가하였으므로 청년들의 취업의욕을

고취한다고 확인하였다. 또한, 김도균 외(2017)에 의하면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정책적 목적이 기존의 일자리 사업과는 다르므로 취업 여부를 통해서만 정책의 효과를 분석해서는 안 된다는 제언을 한 바 있다. 따라서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 현재 미취업상태인 청년들의 구직 시도에 영향을 주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의 중점적으로 확인하고자 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 차별성에 대해서 분석하기 위해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한 청년들에 대해서도 동일한 가설을 아래와 같이 설정하였다.

가설 1. 취업지원 정책은 청년들의 구직활동 여부에 정(+)¹의 영향을 줄 것이다.

가설 1-1.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청년들의 구직활동 여부에 정(+)¹의 영향을 줄 것이다.

가설 1-2. 취업성공패키지는 청년들의 구직활동 여부에 정(+)¹의 영향을 줄 것이다.

또한, 전병유 외(2014)의 연구에서는 실업급여와 같은 소득 보전 방식이 근로인센티브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밝힌 바 있으며, 김용성(2008)의 연구에서 또한 미취업상태의 소득 증가는 유보임금을 상승시키고 미취업상태의 효용을 증가시켜 취업의 확률을 하락시킬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 청년들의 유보임금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의문을 확인하고, 나아가서 <가설 1>과 마찬가지로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 차별성에 대해서도 확인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2. 취업지원 정책은 청년들의 유보임금 상승(+)²에 영향을 줄 것이다.

가설 2-1.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청년들의 유보임금 상승에 정(+)²의 영향을 줄 것이다.

가설 2-2. 취업성공패키지는 청년들의 유보임금 상승에 정(+)²의 영향을

줄 것이다.

마지막으로 취업지원 정책 간의 차별성을 확인하고자 청년들의 취업목표 인식에 대한 가설을 설정하였다. 고재성 외(2019)의 논의 및 고용노동부에서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짧은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취업활동에 의의가 있고, 취업성공패키지는 취업목표가 뚜렷하지 않아 방황하는 청년들에게 의의가 있음을 대표적인 정책의 차이로 밝히고 있다. 이는 박혁(2013)의 연구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정책의 대상인 청년들의 성향에 따라 다른 정책적 수요가 필요하다는 결과와 연결하여 생각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취업지원 정책이 청년들의 취업목표 인식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3. 취업지원 정책은 청년들의 취업목표 인식에 정(+)¹의 영향을 줄 것이다.

가설 3-1.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청년들의 취업목표 인식에 정(+)¹의 영향을 줄 것이다.

가설 3-2. 취업성공패키지는 청년들의 취업목표 인식에 정(+)¹의 영향을 줄 것이다.

위의 가설 및 연구분석 과정에 대해 <그림 2> 및 <표 5>와 같이 요약하였다.

<그림 2> 연구분석 틀



<표 5> 가설 요약

가설내용
<p>1. 취업지원 정책은 청년들의 구직활동 여부에 정(+)¹의 영향을 줄 것이다.</p> <p>가설 1-1.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청년들의 구직활동 여부에 정(+)¹의 영향을 줄 것이다.</p> <p>가설 1-2. 취업성공패키지는 청년들의 구직활동 여부에 정(+)¹의 영향을 줄 것이다.</p>
<p>2. 취업지원 정책은 청년들의 유보임금에 정(+)²의 영향을 줄 것이다.</p> <p>가설 2-1.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청년들의 유보임금에 정(+)²의 영향을 줄 것이다.</p> <p>가설 2-2. 취업성공패키지는 청년들의 유보임금에 정(+)²의 영향을 줄 것이다.</p>
<p>3. 취업지원 정책은 취업목표 인식에 정(+)³의 영향을 줄 것이다.</p> <p>가설 3-1.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청년들의 취업목표 인식에 정(+)³의 영향을 줄 것이다.</p> <p>가설 3-2. 취업성공패키지는 청년들의 취업목표 인식에 정(+)³의 영향을 줄 것이다.</p>

제2절 연구분석 모형

1. 분석자료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실시하는 대졸자 직업이동경로조사(Graduates Occupational Mobility Survey : GOMS)이며, 해당 조사는 매년 대학(교) 졸업자 1만 8천 명을 표본으로 추출하여 1회 조사를 시행하는 횡단면 조사이다. 조사 배경은 다음과 같다 “2006년 조사 시작 당시에는 매년 실시하는 패널 조사로 설계되었으나, 2012년 이후로는 횡단면 조사만 시행되고 있다. 조사 내용은 대졸자의 교육과정, 구직활동, 일자리 경험, 직업훈련, 자격증, 개인신상정보 및 가계 배경 등 노동시장 진입 및 정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항목들이다. 한국고용정보원에서는 장기간 지속하는 대졸 청년실업 문제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서는 졸업 시점의 경제 상황에 따라 대졸자들의 노동시장 진입 및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효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기에 이를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고, 이런 변화에 부응하고 정책적 수요를 충족시키고자 대졸자들의 노동시장 진입과 정착 과정에 대한 실증적 자료를 작성하고 있음”을 배경으로 밝히고 있다. 해당 연구에 사용한 연도는 2019년 조사로, 조사기준일은 2019년 9월이며 해당 표본의 대상들은 2017년 8월 또는 2018년 2월 졸업생들이다.

2. 조작적 정의

본 연구를 위해 사용한 자료인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2019년)의 설문에 응답한 대상은 18,163명으로 그중에서 조사 시점 현재 취업 또는 아르바이트 등 경제적 활동을 하는 대상이 13,295명이며, 현재 경제적 활동을 하고 있지는 않으나 취업을 위해 구직활동을 하는 대상이 1,727명이며, 현재 경제적 활동을 하고 있지도 않고 지난 4주 동안 취업을 위해 구직활동을 하지도 않은 대상이 3,141명이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구직활동 여부, 유보임

금 그리고 취업목표 인식이라는 3가지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였다. 이를 통해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및 취업성공패키지와 같은 취업 지원 정책이 청년들을 구직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해당 연구를 위한 표본 모수는 취업을 위해 구직활동을 하는 대상과 취업을 위해 구직활동을 하지도 않은 대상의 합인 4,868명이며, 해당 모수 중 각 변수의 값에 모름/무응답 등 결측값 등 1,390명을 제외한 3,478명을 최종 표본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취업목표 인식에 관해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의 설문 중 취업 관련한 자기 생각 중 “나는 미래직업에 대한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에 대한 답변을 값으로 설정하였다. 해당 설문은 리커트 5점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1점), 별로 그렇지 않다(2점), 보통이다(3점), 약간 그렇다(4점), 매우 그렇다(5점)로 구성되어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청년은 취업목표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3. 변수의 구성

본 연구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대졸 청년이 졸업한 후 약 18개월 이상 지난 시점의 구직활동 여부, 유보임금, 취업목표 인식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였다. 구직활동 여부에 대한 설문은 “설문 시점 기준으로 지난 4주 이내에 구직활동 경험이 있습니까?”에 대한 응답으로, 아님 경우는 1의 값을, 구직활동 경험이 있는 경우는 2의 값을 부여하였다. 유보임금은 설문조사 중 “향후 일을 한다면 받아들일 수 있는 최저 연봉은 얼마입니까?”에 대한 응답이며, 단위는 만 원으로 별도 조작을 시행하지 않고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취업목표 인식에 대해서는 취업 태도와 관련한 설문 문항의 리커트 5점 척도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통계변수로 설정한 요인들을 살펴보면 개인요인 중 성별에 따라 노동정책의 영향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이은아·이

해진, 2005; 김호원·이종구, 2018). 혼인 또한 노동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민현주·임희정, 2009). 연령 및 청년의 생활비 지출금액이 역시 대학졸업자의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이규용·김용현, 2003; 박환보, 2011; 김도균, 2018). 가구요인 관련으로는 부모의 학력, 부모의 소득, 부모의 자산 및 가족으로부터의 경제적 지원 등이 자녀의 취업 등에 미치는 영향은 여러 연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성수빈, 2017, 구인희, 2003, 이현성, 2010, 김덕호, 2020, 박환보, 2011). 마지막으로 학교요인 관련으로는 전공계열과 학교 유형이 취업의 성과 및 노동정책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강순희·윤석천·박성준, 2011; 김호원·이종구, 2018). 그리고 학교의 소재지에 따라 노동정책의 만족도 및 근로의욕에 유의미한 차이를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호원·이종구, 2018; 박환보, 2011).

독립변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금을 받고 있거나 받은 적이 있습니까?”에 대한 응답이며, 현재는 받지 않더라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에도 대상이 된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받은 여부를 더미 변수화하여 받지 않았으면 0의 값을, 받았으면 1의 값을 부여하였고, 마찬가지로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한 적이 없는 경우에는 0의 값을, 있는 경우에는 1의 값을 부여하였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취업성공패키지는 모두 생애 1회의 기회만 주어지므로 같은 취업 지원 정책을 여러 번 받을 수는 없다. 그러나 약 6개월 이상의 기간을 두고 순차적으로는 받을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중복 수혜자들은 제외하였고 기타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금을 받은 대상도 제외하여 정책의 중복 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다. 각 변수의 유형과 구성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6>과 같다.

<표 6> 변수의 구성

변수		측정	
종속 변수	구직 활동	지난 4주 이내 구직활동 경험 여부	없음=1, 있음=2
	유보 임금	수용 가능한 최소한의 연봉	연평균 연봉 (단위 : 만원)
	취업목표 인식		전혀 그렇지 않다=1, 별로 그렇지 않다=2, 보통이다=3, 약간 그렇다=4, 매우 그렇다=5
독립 변수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경험 여부	받은 경험 없음=0, 받은 경험 있음=1	
	취업성공패키지 경험 여부	받은 경험 없음=0, 받은 경험 있음=1	
통제 변수	학교 요인	전공계열	인문=1, 사회=2, 교육=3, 공학=4, 자연=5, 의약=6, 예체능=7
		학교유형	2~3년제=1, 4년제=2, 교육대=3
		학교 소재 권역	서울권=1, 경기권=2, 충청권=3, 경상권=4, 전라권=5
	가구 요인	부모님 월평균 소득	소득없음=1, 100미만=2, 200미만=3, 300미만=4, 400미만=5, 500미만=6, 700미만=7, 1000미만=8, 1000이상=9 (단위:만원)
		최종 학력(부)	무학=1, 초등=2, 중학=3, 고등=4, 전문대=5, 대학=6, 대학원=7
		최종 학력(모)	무학=1, 초등=2, 중학=3, 고등=4, 전문대=5, 대학=6, 대학원=7
		현재 부모님의 자산규모	0.5미만=1, 0.5~1.5미만=2, 1.5~3미만=3, 3~5미만=4, 5~10미만=5, 10이상=6 (단위:억원)
		가족으로부터 경제적 지원	아니오=1, 예=2
	개인 요인	월 평균 생활비 지출	작년 한 달 평균 생활비 지출 (주거비, 교육비 및 가족으로부터 지원 제외)
		연령	18세~34세(청년)
		성별	남성=1, 여성=2
		혼인 경험	혼인경험 있음=1, 혼인경험 없음=2

4. 연구분석 방법

본 연구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 청년들에게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 나아가서 취업지원 정책 간 차별점에 관해서 확인하고자 하였다. 세부적으로 먼저 확인하고자 하는 효과인 구직활동 여부는 지난 4주 이내 경험에 대해 “예/아니오”로 응답하는 이변량 변수임을 고려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또한, 선형 회귀분석을 통해 두 취업지원 정책이 청년들의 유보임금을 통계적으로 상승시키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정책의 의의로 밝힌 바와 같이 청년들의 취업목표에 대한 인식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한 마찬가지로 취업성공패키지를 경험한 청년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제4장 연구결과

제1절 결과 요약

1. 기초통계분석

본 연구를 위해 사용한 자료인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2019년)의 설문에 응답한 미취업 상태인 대상은 4,868명이며, 이 중 모름/무응답 등 결측값 등 1,390명을 제외한 3,478명의 개인 요인별 특성은 다음 <표 7>과 같다. 성별의 경우 응답자 중 남성이 53.5%, 여성이 46.7%였으며, ‘혼인 경험은 없음’ 이 98.3%, ‘혼인 경험이 있음’으로 응답한 청년은 1.7% 였다. 연령의 경우 평균이 25.92세로 나타났다으며, 응답자의 지난 한 해 소득은 평균 657.15만원, 중위값은 45만원 이었다.

<표 7> 개인 요인별 특성

구분		빈도(비중), 값
성별	남	1,853(53.5%)
	여	1,625(46.7%)
연령 (조사기준일 당시)	최소값	19.83
	평균	25.92
	중위값	25.92
	최대값	34.58
혼인 경험	혼인 경험 없음	3,420(98.3%)
	혼인 경험 있음	58(1.7%)
월 평균 생활비 지출(만원)	최소값	1
	평균	57.65
	중위값	50
	최대값	1,100
전체 값		3,478명

표본의 가구 요인별 특성은 <표 8>과 같다. 표본들의 부모님 월평균 소득은 4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이 가장 많았으며, 500만원

이상 ~ 700만원 미만인 경우가 뒤를 이었다. 최종 학력(부)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이 가장 많았으나, 대학교 졸업 역시 근사한 빈도수를 나타냈다. 다만 최종 학력(모)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이 큰 차이를 보이며 가장 많이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님들의 자산 규모는 3억원 이상 ~ 5억원 미만이 가장 많았으며, 1억 5천만원 이상 ~ 3억원 미만이 두 번째로 많았다. 마지막으로 가족으로부터의 경제적 지원을 받는 청년은 2,190명으로 전체 응답의 63%로 나타났다.

<표 8> 가구 요인별 특성

구분		빈도(비중), 값
부모님 월평균 소득(만원)	소득없음	88(2.5%)
	100 미만	63(1.8%)
	200 미만	233(1.8%)
	300 미만	484(13.9%)
	400 미만	615(17.7%)
	500 미만	857(24.6%)
	700 미만	623(17.9%)
	1000 미만	326(9.4%)
	1000 이상	189(5.4%)
최종 학력(부)	무학	7(0.2%)
	초등학교	76(2.2%)
	중학교	158(4.5%)
	고등학교	1,323(38.0%)
	전문대	276(7.9%)
	대학	1,303(37.5%)
	대학원	335(9.6%)
최종 학력(모)	무학	5(0.1%)
	초등학교	88(0.5%)
	중학교	156(4.5%)
	고등학교	1,815(52.2%)
	전문대	283(8.1%)
	대학	959(27.6%)
	대학원	172(4.9%)
현재 부모님의 자산규모	5천만원 미만	187(5.4%)
	1억 5천만원 미만	312(9.0%)

	3억원 미만	1,107(31.8%)
	5억원 미만	1,267(36.4%)
	10억원 미만	456(13.1%)
	10억원 이상	149(4.3%)
가족으로부터 경제적 지원	예	2,190(63%)
	아니오	1,288(37%)
전체 값		3,478명

표본의 학교 요인별 특성은 <표 9>과 같다. 응답자의 전공계열은 공학이 26.5%로 가장 많았으며, 사회계열과 자연계열이 그 뒤를 이었다. 학교 유형은 4년제 졸업이 79.7%로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응답자들의 학교의 소재지는 경상권이 27.2%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서울권이 23.6%로 두 번째로 많았다.

<표 9> 학교 요인별 특성

구분		빈도(비중), 값
전공계열	인문	528(15.2%)
	사회	692(19.9%)
	교육	299(8.6%)
	공학	920(26.5%)
	자연	534(15.4%)
	의약	127(3.7%)
	예체능	378(10.9%)
학교유형	2~3년제	684(19.7%)
	4년제	2,772(79.7%)
	전문대	22(0.6%)
학교 소재 권역	서울권	822(23.6%)
	경기권	695(20.0%)
	충청권	583(16.8%)
	경상권	946(27.2%)
	전라권	432(12.4%)
전체 값		3,478명

본 연구의 독립변수가 되는 청년들의 취업지원 정책 경험 여부는 <표 10>과 같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경험한 청년은 472명으로 13.6%이며, 취업성공패키지를 경험한 청년은 629명으로 18.1%였다.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청년은 2,377명으로 68.3%를 기록하였다.

<표 10> 청년 취업지원 정책 경험 여부

구분		빈도(비중), 값
취업지원 정책 경험 여부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472(13.6%)
	취업성공패키지	629(18.1%)
	경험 없음	2,377(68.3%)
전체 값		3,478명

본 연구의 종속변수에 대한 기초통계는 <표 11>과 같다. 응답자 중 30.2%가 ‘현재 구직활동을 하는 중’으로 응답하였으며, 69.8%가 ‘현재 구직활동을 하지 않음’으로 답하였다. 응답자들이 생각하는 유보임금은 최소 연 임금 1,000만원이었으며, 평균은 3,011만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취업목표 인식에 대한 설문내용인 미래직업에 대한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음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 (42명)에서 ‘매우 그렇다’ (1,029명)까지 총 3,478명이 답하였다.

<표 11> 종속변수 관련 기초통계

구분		빈도(비중), 값
구직활동 여부	구직활동 하는 중	1,052(30.2%)
	구직활동 하지 않는 중	2,426(69.8%)
유보임금(만원, 연)	최소값	1,000
	평균	3,011
	중위값	2,900
	최대값	10,000
미래직업에 대한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음	전혀 그렇지 않다	42(1.2%)
	별로 그렇지 않다	272(7.8%)
	보통이다	855(24.6%)
	약간 그렇다	1,280(36.8%)
	매우 그렇다	1,029(29.6%)
전체 값		3,478명

2.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취업성공패키지 평균 차이

두 취업 지원 정책의 차이를 확인하고자 <표 12>와 같이 ANOVA 분산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구직활동 여부에 관해서는 아무런 취업 지원 정책을 경험하지 않았을 때보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또는 취업성공패키지를 경험한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평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두 취업지원 정책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반면 유보임금의 경우 아무런 취업 지원 정책을 경험하지 않은 경우가 가장 유보임금이 높은 것으로 통계적으로 확인되었으나, 마찬가지로 두 취업 지원 정책간의 유의한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취업목표 인식에 대해서는 취업성공패키지를 경험한 경우가 통계적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 ANOVA 분산 분석 결과

종속변수	취업지원 정책 경험	평균	표준편차	F값	사후검증
구직활동 여부	해당없음(a)	1.25	.435	44.116 ***	b>a*** c>a***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경험(b)	1.37	.484		
	취업성공패키지 경험(c)	1.43	.495		
유보임금	해당없음(a)	3109.36	1054.97	41.929 ***	a>b*** a>c***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경험(b)	2837.92	665.579		
	취업성공패키지 경험(c)	2769.92	565.363		
취업목표 인식	해당없음(a)	3.89	.955	19.807 ***	a>c*** b>c***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경험(b)	3.97	.959		
	취업성공패키지 경험(c)	3.65	1.009		

주: *** p<0.01, ** p<0.05, * p<0.1

제2절 회귀분석

1. 구직활동 여부

<표 13>과 같이 구직활동 여부를 종속변수로 하여 로지스틱 회귀 분석 한 결과,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경험한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구직활동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약 1.68배로 확인되어,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 청년들의 구직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김덕호(2020)에서 논의하는 바와 같이 정부 정책에 참여하는 청년들이 참여하지 않는 청년들에 비해 취업에 대한 의지가 높기 때문으로 볼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취업성공패키지를 경험한 때도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구직활동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약 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 청년 취업지원 정책이 청년들의 구직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같이 현금성 지원이 청년들을 실질적으로 취업 활동으로 유인하기 어렵다는 의견과는 다른 결과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취업지원 정책이라 하더라도 취업성공패키지의 경우 청년구직활동지원금보다 더 구직활동을 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나 구체적인 알선 등을 포함하는 정책의 성격이 통계적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가구요인은 전반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청년들의 구직활동 여부는 부모님의 재산, 소득 및 학력 등이 결정적인 요인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가족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을 때는 청년들이 구직활동을 할 가능성이 줄어드는 것으로 확인되어 청년의 경제적 배경은 여전히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나이가 많을수록 구직활동을 할 가능성이 컸으며, 여성의 경우 남성보다 구직활동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여성이 대학 졸업 후 취업 의향이 있고 구직활동을 계속하고 있으나 미취업상태일 확률이 높은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사유는 더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13> 구직활동 여부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결과

변수명		N = 3,478		
		B	S.E.	Exp(B)
학교요인	전공계열(사회)	-.158	.130	.854
	전공계열(교육)	-.621***	.188	.538
	전공계열(공학)	.115	.127	1.122
	전공계열(자연)	-.100	.139	.905
	전공계열(의약)	-.054	.225	.948
	전공계열(예체능)	.121	.152	1.129
	학교유형(4년제)	-.140	.117	.869
	학교유형(교육대)	.045	.592	1.046
	학교 소재지(경기권)	.122	.121	1.129
	학교 소재지(충청권)	.226*	.125	1.254
	학교 소재지(경상권)	.219**	.111	1.245
	학교 소재지(전라권)	-.004	.142	.996
가구요인	부모님 월평균 소득	.021	.024	1.021
	최종 학력(부)	-.075	.040	.928
	최종 학력(모)	.033	.043	1.034
	부모님 자산 규모	-.058	.037	.944
개인요인	연령	.127***	.027	1.135
	여성	.214**	.098	1.238
	혼인경험(없음)	.713**	.334	2.039
	가족으로부터 지원(예)	-.511***	.079	.600
	월 평균 생활비 지출	.001	.001	1.001
청년 취업지원 정책 경험	청년구직활동지원금	.516***	.112	1.676
	취업성공패키지	.713***	.097	2.041
Cox & Snell R2		0.056		
Nagelkerke R2		0.079		
-2 로그 우도		4063.907		
Hosmer & Lemeshow		0.567		

주: *** p<0.01, ** p<0.05, * p<0.1

2. 유보임금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 유보임금에 미치는 영향은 <표 14>와 같다. 분석결과 본 연구에서는 취업지원 정책을 경험한 청년들의 유보임금 상승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음과 같이 추론할 수 있는데, ① 취업지원 정책에서 제공하

는 현금성 보조금이 생계를 유지할 정도의 금액이 아니므로 단기성 취업지원 현금 지원이 청년들의 유보임금을 상승시킬 정도는 아니며 ②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경험한 청년보다 취업성공패키지를 경험한 청년의 경우 상대적으로 더 낮은 유보임금을 나타낸다는 점이다. 이는 청년들의 유보임금이 사회적 환경 및 배경의 차이에서 기인하거나 청년 개인의 목표 의식 등에 의해 받는 영향이 더 큰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의 소득 및 월 평균 생활비 지출이 많을수록 유보임금이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취업지원 정책에 참여한 청년들은 아무런 정책을 경험하지 않은 청년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특히 취업성공패키지를 참여한 경우,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참여한 경우보다 유보임금이 더 낮은 것은 다양한 각도로 이해할 수 있으나, 해당 정책을 참여한 청년들의 성격 및 성향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으며 이는 취업목표 인식에 대한 분석과도 연결된다. 한편 학교요인이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의 유의도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인문계열에 비해 공학, 자연 및 의약 계열 학생들은 유보임금이 높게 나타나며, 2~3년제 졸업생과 비교하면 4년제 졸업생이 유보임금이 더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학교의 소재지에서도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데, 서울권에 소재한 대학교 대비 기타 지방 소재의 학교를 졸업한 졸업생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차이를 보이며 유보임금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청년들이 자신들의 학교 또는 전공을 바탕으로 취업 시 기대되는 소득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음을 이해할 수 있으며, 유보임금이 스스로 구체적으로 책정하기보다는 자신을 둘러싼 요인에 의해 사회적으로 결정된 금액을 따라간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반면, 부모의 소득, 현재 생활비의 지출 및 최종 학력(부)를 보면 부모가 학력이 높을수록 소득이 높을 가능성이 크고 이로 인해 청년이 가지는 경제적 여유가 고정적 소비생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므로 청년들의 유보임금을 상승시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여성의 경우 남

성보다 유보임금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오는 것은 학교요인과 마찬가지로 여성이 주로 취업할 것으로 기대되는 직업의 임금을 반영하여 인식하고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표 14> 유보임금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결과

변수명		N = 3,478		
		B	표준 B	t
학교요인	전공계열(사회)	97.363*	.041	1.944
	전공계열(교육)	-118.772*	-.035	-1.843
	전공계열(공학)	218.421***	.102	4.427
	전공계열(자연)	239.100***	.091	4.499
	전공계열(의약)	331.473***	.066	3.807
	전공계열(예체능)	-39.447	-.013	-.662
	학교유형(4년제)	346.537***	.147	7.659
	학교유형(교육대)	166.045	.014	.848
	학교 소재지(경기권)	-459.167***	-.194	-9.957
	학교 소재지(충청권)	-591.329***	-.233	-12.424
	학교 소재지(경상권)	-528.380***	-.248	-12.443
	학교 소재지(전라권)	-584.116***	-.203	-11.112
가구요인	부모님 월평균 소득	38.086***	.072	4.198
	최종 학력(부)	49.302***	.065	3.238
	최종 학력(모)	21.749	.026	1.324
	부모님 자산 규모	-22.010	-.026	-1.546
개인요인	연령	1.590	.003	.155
	여성	-282.759***	-.149	-7.561
	혼인경험(없음)	194.362	.026	1.609
	가족으로부터 지원(예)	17.339	.009	.556
	월 평균 생활비 지출	2.182***	.114	6.942
청년 취업지원 정책 경험	청년구직활동지원금	-127.196***	-.046	-2.839
	취업성공패키지	-201.321***	-.082	-5.103
R2		0.185		
수정된 R2		0.180		
F		34.119		
Durbin-Watson		1.989		

주: *** p<0.01, ** p<0.05, * p<0.1

3. 취업목표 인식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 취업목표 인식에 미치는 영향은 <표 15>과 같다. 분석결과,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은 청년들은 아무런 취업지원 정책을 경험하지 않은 청년 대비 뚜렷한 취업목표를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취업성공패키지를 경험한 청년의 경우에는 오히려 더 낮아지는 것이 확인되었는데 이는 같은 취업지원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프로그램의 강제성, 취업 정보의 제공 및 알선 등 정책의 세부적인 방향이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즉,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청년들이 스스로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경우 효과적인 취업활동을 위해 선호하는 반면, 취업성공패키지의 경우 스스로 취업목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경우 여러 가지 정보들을 위해 선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전공계열(교육)의 사례와 같이 전반적으로 교직을 목표로 하므로 뚜렷한 취업목표 인식을 하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는 것처럼,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지원한 청년들은 스스로 취업을 준비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통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반면 개인요인 중 여성의 경우 취업목표에 대한 인식이 남성에 비해 낮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은 여성들이 전반적으로 취업목표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다는 시사점을 가져다준다. 또한 어머니의 최종학력이 높을수록 자신의 취업목표에 대해 뚜렷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모님의 소득이 높을수록, 가족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취업목표에 대해 더 뚜렷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가구의 경제적인 배경이 청년들의 직업탐색에 대한 기회와 여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표 15> 취업목표 인식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결과

변수명		N = 3,478		
		B	S.E	Wald
학교요인	전공계열(인문)			
	전공계열(사회)	.032	.106	.092
	전공계열(교육)	.685***	.139	24.232
	전공계열(공학)	.003	.105	.001
	전공계열(자연)	.138	.113	1.506
	전공계열(의약)	-.007	.184	.002
	전공계열(예체능)	.121	.126	.915
	학교유형(4년제)	.152	.096	2.522
	학교유형(교육대)	.189	.424	.198
	학교 소재지(경기권)	-.023	.098	.055
	학교 소재지(충청권)	-.087	.101	.732
	학교 소재지(경상권)	-.265***	.090	8.628
	학교 소재지(전라권)	-.175	.112	2.450
가구요인	부모님 월평균 소득	.054***	.019	7.902
	최종 학력(부)	-.020	.032	.402
	최종 학력(모)	.074**	.035	4.447
	부모님 자산 규모	-.016	.030	.287
개인요인	연령	.024	.022	1.251
	여성	-.255***	.080	10.298
	혼인경험(없음)	.463*	.255	3.291
	가족으로부터 지원(예)	.137**	.066	4.253
	월 평균 생활비 지출	.001	.001	.717
청년 취업지원 정책 경험	청년구직활동지원금	.214**	.096	5.007
	취업성공패키지	-.340***	.084	16.566
Cox & Snell R2		0.040		
Nagelkerke R2		0.043		
카이제곱		76.829		
로그우도		9002.353		
TPL 라인 평행성 검정		0.242		

주: *** p<0.01, ** p<0.05, * p<0.1

제5장 결론 및 제언

제1절 결과 요약

분석 결과에 따른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나 취업성공패키지나 취업지원 정책은 청년들의 구직활동 여부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취업성공패키지를 경험한 청년의 경우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경험한 경우보다 구직활동을 할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일자리를 직접적으로 알선해주는 정책의 성격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둘째,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나 취업성공패키지의 경험은 청년들의 유보임금을 상승시키지는 못하였다. 이는 취업지원 정책이 청년들의 유보임금을 상승시킬 정도의 지원이 아니라고 볼 수 있으며, 오히려 현금성 지원인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경험한 경우보다 취업성공패키지를 경험한 경우가 유보임금이 더 낮다는 점은 개인의 배경, 사회 환경 및 자기 목표 등이 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셋째,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경험하였을 때 상대적으로 취업목표를 잘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취업성공패키지를 경험하였을 때 상대적으로 취업목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정책 간 차이점을 확인하였으며, 결과 요약은 <표 16>과 같다.

<표 16> 결과 요약

가설내용

1. 취업지원 정책은 청년들의 구직활동 여부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

가설 1-1.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청년들의 구직활동 여부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 (지지함)

가설 1-2. 취업성공패키지는 청년들의 구직활동 여부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 (지지함)

2. 취업지원 정책은 청년들의 유보임금에 정(+)¹의 영향을 줄 것이다.

가설 2-1.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청년들의 유보임금에 정(+)¹의 영향을 줄 것이다. (지지하지 않음)

가설 2-2. 취업성공패키지는 청년들의 유보임금에 정(+)¹의 영향을 줄 것이다. (지지하지 않음)

3. 취업지원 정책은 취업목표 인식에 정(+)¹의 영향을 줄 것이다.

가설 3-1.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청년들의 취업목표 인식에 정(+)¹의 영향을 줄 것이다. (지지함)

가설 3-2. 취업성공패키지는 청년들의 취업목표 인식에 정(+)¹의 영향을 줄 것이다. (지지하지 않음)

제2절 연구의 의의 및 한계

결과에 따른 의의는 다음과 같다. 먼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현금성 지원 정책이나, 청년들의 유보임금을 상승시키지 않고 청년들의 구직활동을 가능성을 높여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경험한 청년들의 구직활동 가능성에 긍정적이라는 점은 현금성 지원이 청년들의 취업에 대한 의욕을 저하하지 않는다는 결과와 연결하여 이해할 수 있다. 이는 취업지원 정책이 유보임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 확인해도 마찬가지로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취업지원 정책은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같이 현금성 지원이나 취업성공패키지와 같이 알선 및 교육과 같은 프로그램형이나 둘 다 청년들의 취업에는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경험한 청년들의 경우 취업목표에 대해 상대적으로 뚜렷하게 인식하고 있을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 정책적 차별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청년들은 취업성공패키지와 같이 일자리 알선 및 프로그램 참석 등의 구체적인 지원이 필요한 예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자율적이고 집중적인 현금성 지원이 필요한 예도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고용노동부에서 밝히는 바와 같이 집중적이고 자율적인 취업활동을 지원한다는 정책적 목표에 부합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취업지원 정책인 취업성공패키지는 선행연구(김덕호, 2020; 박혁, 2013; 김호원·이종구, 2018)에서 밝힌 바와 프로그램의 필수 참여 및 취업이라는 결과에 중점을 둔 프로그램 운영을 하여 오히려 청년들의 참여를 막는 장애가 되기도 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취업목표에 대한 인식을 통해 취업목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청년들의 경우에는 충분히 정책적인 의미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확인하였다. 즉,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라는 취업지원 정책이 시행됨에 따라, 보다 능동적이고 자주적으로 취업활동을 하고 싶은 청년과 프로그램 참여 및 취업알선 등의 수동적이지만 효율적으로

정보를 받으며 취업활동을 하고 싶은 청년으로 구분하여 접근할 필요성에 대한 정책적 의의를 확인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청년의 취업활동에 긍정적이며 기존의 취업지원 정책인 취업성공패키지와 차별적인 정책적 의의도 확인할 수 있었다. 선행연구(김도균 외, 2017; 김호원·이종구, 2018)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청년층의 유형과 특성에 따른 취업지원 정책의 효과 및 만족도가 차이가 나므로 일자리 알선과 같은 정책과 함께 소득 보전 정책의 필요성에 관해 본 연구에서는 통계적으로 접근하여 확인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정병석(2010)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노동정책은 신속한 취업상태로의 이행을 통해 개인의 소득을 회복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그러나 변화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노동정책 역시 변화가 필요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청년 노동시장은 일자리 자체가 부족하다기보다는 고학력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점이 가장 핵심적인 요인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취업이라는 양적인 목표는 정책 수요자를 만족시키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청년들의 취업지원 정책은 정책의 대상인 청년들의 수요에 맞춰 여러 방법으로 전달할 필요가 있다. 이는 이행노동시장이론에서 언급하는 바와 같이 노동의 이행과정에 있어서 마주하는 위험을 사회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며, 이러한 관리를 통해 노동시장은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본 연구를 통해 추가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여성의 경우 구직활동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고, 유보임금은 낮지만, 남성과 비교하면 구체적인 취업목표에 대한 인식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추론할 때, 여성들의 경우 취업에 대한 목표가 뚜렷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금 외의 요인에 대해 선호하는 직장을 지속하여 탐색하고 있을 수 있다.

둘째, 취업과 관련한 청년들의 생각은 외부적인 요인의 영향을 많은 받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유보임금의 경우, 현금성 지원의 영향보다는 본인의 사회적인 환경이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며, 취업목표에 대한 인식의 경우 교육을 전공한 학생의 경우 명확한 취업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청년들의 취업 문제는 청년들의 목표에 따른 재탐색 및 청년들이 현실적으로 지원가능한 사회적 환경 등을 두루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며, 이러한 추론은 앞으로도 정책의 설계에 있어 정책 수요자에 대해 이해와 다양한 정책의 필요성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정책적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첫째, 해당 연구가 사용한 표본인 대졸자직업이동경로 조사는 횡단면 분석 자료이기 때문에 해당 정책을 경험한 청년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전후 비교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해당 표본 조사는 대학 졸업 후 18개월 지난 시점에서의 분석이므로 경제적 상황 및 정책적 변화 등의 사회 환경적인 변화가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셋째, 취업성공패키지는 소득의 제한이 없으나 청년구직활동 지원금은 소득의 제한이 있어 같은 정책 조건을 두고 비교해서 이해하는 것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 넷째, 두 정책의 차이를 확인하고자 통계적 방법으로 접근하였으며, 각 정책은 통계적인 방법이 아닌 여러 효과를 정책대상자인 청년에게 가져다줄 수 있으므로 해당 연구결과를 확대하여 이해하는 것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본 연구는 현재 직업이 없는 청년들에 대해 분석하였으므로 취업지원 정책을 경험한 후 현재 직업이 있는 청년들을 아우르지 못하였다. 마지막으로, 통제변수를 통해 개인들의 특성을 통제하였으나 완전하게 통제하지 못하여 선택편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참고문헌

- 강순희. (2018). 대졸 청년 노동시장 이행의 코호트 간 비교연구. 노동정책연구, 18(4), 1-29.
- 강순희, 윤석천, & 박성준. (2011). 한국의 인적자본투자 성과분석. 한국노동연구원.
- 고재성, 김강호, 정연순, 남기곤, 이영민, 정진철, 서복경, 현우영, 이혜나, 양인준, & 조성은 (2019).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성과 평가 및 모니터링 연구」. 한국고용정보원 정책보고서
- 고용노동부. (2020). 「2020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업무매뉴얼」. 고용노동부 공정채용기반과
- 고용노동부. (2019). 「내 삶을 바꾼 취업성공패키지, 10년간 115만명 취업」.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19. 5. 23. 석간.
- 고용노동부. (2019).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덕분에 경제적 부담 없이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어요!」.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19. 10. 29. 조간
- 고용노동부. (2020). 「고용노동백서」
- 구인회. (2003). 경제적 상실과 소득수준이 청소년의 교육성취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학, 53, 7-30.
- 국민일보 (2019.10.29.) 「[사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 생활보조금이었나」,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04994&code=11171111&cp=nv>
- 김호원, & 이종구. (2018). 취업성공패키지 청년층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자의 만족도와 성과에 관한 연구. 취업진로연구, 8(1), 1-20.
- 김덕호. (2020). 청년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이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 노동정책연구, 29-63.
- 김기현, 배상률, 성재민, & 배진우. (2018). 청년 핵심정책 대상별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I: 청년 니트 (NEET).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1-311.
- 김용성. (2008). 청년 실업의 원인과 정책적 대응 방안. KDI.

- 김도균, 최석현, & 유보배. (2017). 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 도입을 위한 기초연구. 정책연구, 1-170.
- 김도균. (2018). 취업준비 활동의 계층화와 청년정책의 발전 방향: 경기도 청년구직활동 실태조사 분석을 중심으로.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308-332.
- 김종성, & 이병훈. (2012). 대졸청년층의 비경활상태 결정요인에 관한 종단연구. 한국고용정보원
- 김유빈, 강동우, 오선정, 유동훈, & 이지은. (2018). 청년 삶의 질 제고방안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 민현주, & 임희정. (2009). 여성일자리 이동실태와 노동시장 성과제고를 위한 정책과제.
- 박혁. (2013). 「취업성공패키지지원사업 운영실태 파악 및 성과분석」. 한국노동연구원 보고서
- 박환보. (2011). 대졸자 취업에 미치는 개인배경과 대학 특성의 영향. 직업능력개발연구, 14(3), 1-25.
- 성수빈. (2017).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의 직업적 선택에 미치는 영향: 공무원 시험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143-154.
- 유영성, 윤성진, 정원호, 김재신, 마주영, 김교성, 서정희, & 이지은. (2019).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정책효과 분석 : 사전 및 사후조사 비교」. 경기연구원.
- 이병희, 길현종, 김혜원, 이영수, 오민홍. (2016). 「취업성공패키지 성과분석 및 제도 개편방안」. 한국노동연구원.
- 우아영, & 윤연숙. (2020). 30 대 장기 미취업 청년들의 삶의 경험 연구.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 연구보고서, 1-110.
- 이은아, & 이해진. (2005). 「경기도 청년실업정책의 성별영향평가, 경기청년뉴딜사업을 대상으로」. (재)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 정책보고서 6호.
- 이규용, & 김용현. (2003). 대졸 청년층의 노동시장 성과 결정요인. 노동정책연구, 3(2), 69-93.
- 이현성. (2010). 가계 소득이 젊은이의 실업기간에 미치는 영향. 경제

- 연구, 31(2), 47-84.
- 정원호, 나영선, 류기락, & 박경순. (2011). 이행노동시장 연구: 이론과 정책과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정병석. (2010). 한국 노동시장정책의 평가와 발전방안: 이행노동시장 이론의 활용. 노동정책연구, 10(2), 155-185.
- 전병유 · 이병희 · 안태현(2014). 「실업 급여의 고용 성과 분석」. 국회예산정책처 연구 용역보고서
- 황정원, & 길혜지. (2021). 청년고용정책이 대졸 청년층 취업에 미치는 효과 분석. 직업능력개발연구, 24(2), 67-94.
- Schmid, G. (2002). Wege in eine neue Vollbeschäftigung: Übergangsarbeitsmärkte und aktivierende Arbeitsmarktpolitik. Campus Verlag.